

## 피학대아동의 위탁가정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장 윤 영

(송실대학교)

박 태 영

(송실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불가피하게 친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위탁가정에서 보호될 수밖에 없는 피학대아동에 관한 연구로서, 피학대아동이 위탁가정 내에서 겪는 적응과정과 적응과정의 단계, 위탁가정 배치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적응과정과 학대 후유증 회복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한편, 위탁가정 배치 후 친 가정 복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3명의 위탁아동을 중심으로 3명의 위탁부모, 2명의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연구 자료를 얻었으며, 자료에 대한 분석방법은 근거이론적인 접근 방법(Strauss and Corbin, 1990)에 의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위탁가정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마일즈와 휴버만(Miles and Huberman, 1994)의 시간에 따른 매트릭스와 시간에 따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어: 피학대아동, 위탁가정, 적응과정, 적응단계, 학대 후유증, 친 가정 복귀 가능성

### 1. 서 론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업률·이혼율의 증가 등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족해체 현상이 나타나 많은 아동들이 가정으로부터 이탈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해체로부터 발생된 요보호아동이 1998년에 13,958명이었는데, 2003년에는 요보호아동이 21,882명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통계자료, 2003). 보건복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수는 총 18,818명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지난 2003년에 4983건의 아동학대가 아동학대예방

\* 본 연구는 송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센터에 신고 되었고 그 중에 3,074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되어 피해아동의 54.6%가 친 가정에서 보호되었고 나머지 45.4%의 아동이 친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시설보호, 친인척보호, 가정위탁보호, 입원치료, 사망 등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수의 아동들이 친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통계 자료, 2004).

이와 같이 친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들은 대다수 시설보호를 받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친 가정으로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전에는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 시설보호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1989년 UN아동권리협약에서 보호아동에 대한 가정 내에서의 보호를 권고하는 세계적인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도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꾸준히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 2003년 3월에 전국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학대와 방임 등으로 인하여 친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가정위탁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고 지역 내 담당 상담원이 단지 3명, 4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러한 적은 수의 상담원들은 아동을 위탁 배치하는 것 자체의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상담원들은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지해주고 관리하는 역할과 가정위탁보호의 궁극적 목적인 친 가정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친 가정에 대한 서비스, 친부모와 아동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이러한 국내의 상황에서 실제로 위탁아동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심영(2003)은 피학대아동들의 구체적인 위탁보호과정과 피학대아동의 위탁환경들을 실증적 토대위에서 비교하거나 위탁아동의 적응을 다룬 연구는 국내에 거의 없다고 하였다. 최근까지 가정위탁보호에 관하여 국내에서는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전재일·박영준, 2002; 이송이, 1999; 이기정, 1999)와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이후 행정기관과의 협력의 문제(고순이, 2004)와 위탁가정의 실태와 현황을 통한 가정위탁보호의 효과적인 서비스 발전방안(양심영, 2004; 허남순, 2004)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위탁아동의 구체적인 적응에 관한 연구는 부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구 사회에서는 시설보호가 아동의 성격발달이나 행동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피학대 아동에 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실시해오면서 가정위탁보호제도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하여 왔고, 가정위탁보호제도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아동의 위탁가정에서의 표류현상이나 부적응으로 인한 위탁보호 실패를 막고 조속한 친 가정 복귀를 위하여 심각한 학대 후유증을 가진 아동 개개인들에 대한 사례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질 높은 서비스를 위탁가정에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통하여 위탁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허남순, 2000: 267).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가정위탁보호가 제도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많은 수의 아동들이 친 가정으로부터 분리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외국이 먼저 경험하였던 위탁가정에서의 부적응 문제나 친 가정으로의 복귀가 늦어지는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리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외국의 가정위탁보호의 실패와 위기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법적, 제도적으로 가정위탁

보호사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것과 한편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피학대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된 이후 어떻게 적응을 해가며 친 가정으로 복귀해 나가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면으로 심도 깊은 임상연구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임상연구가 축적되고 그에 기초한 위탁보호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질 때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위탁가정에서의 적응, 친 가정으로의 조속한 복귀라는 가정위탁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친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피학대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게 될 경우, 피학대아동은 학대의 후유증과 친부모와의 분리의 경험,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친 가정 복귀라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피학대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하여 탐색적인 질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피학대아동의 위탁가정에서의 적응 과정을 탐구한다.
- 둘째, 피학대아동의 위탁가정 적응 과정의 단계를 발견한다.
- 셋째, 피학대아동의 위탁가정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한다.
- 넷째, 피학대아동의 위탁가정에서 적응과 학대후유증 회복과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 다섯째, 피학대아동의 위탁가정에서의 적응과 친가정복귀와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 2. 문헌 고찰

위탁아동의 적응개념은 아동이 친가정과 분리되어 위탁가정이라는 새로운 가정에 들어가면서 분리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과 가정 내 변화와 학교 등 환경의 변화에 전반적인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이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여 발달적 탄력성(resilience)을 회복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Festinger, 1994; Fein, Maluccio, and Kluger, 1990). 일반적으로 피학대아동들이 위탁가정에 배치될 때 피학대아동들은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피학대아동에게 친 가정에서의 분리는 많은 서로 다른 감정들—슬픔, 외로움과 버림받았다는 느낌, 죄책감, 적대감, 두려움,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Stahl, 1990). 대부분 피학대아동들은 친 가정에서 학대를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집에 거주하기를 원할 수 있다. 한편 그들은 또한 외로움과 버림받음을 느낀다. 그들은 그들이 사랑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원하지 않는데 어떤 누가 그들을 받아들일지 불안감을 가질 것이다. 피학대아동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버린 것에 대하여 부모를 비난하게 될 것이며 종종 죄책감도 느끼게 된다. 피학대아동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버릴 만큼 자신들이 나쁜 아이라는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 심지어 피학대아동이 학대나 방임과 같은 이유로 분리되었을지라도 피학대아동은 자신의 부모가 원해서 아동을 멀리 보냈다고 느끼기도 한다. 친부모가 없다는 현실이 피학대아동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은 어디에서 살게 되고 누가 그들을 보살펴줄지에 대하여 불안해한다. 피학대아동의 친부모와 마찬가지로 피학대아동 또한 충격, 항

의, 절망, 자포자기, 그리고 고립감 등의 감정들을 경험하기도 한다(Stahl, 1990). 또한 안정된 위탁가정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후에도 약 1/3의 피학대아동은 불안 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의 수준이 위탁가정에 배치된 동안에 달라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Rowe et al., 1984).

그러나 가정위탁보호 배치와 분리라는 초기의 부정적인 영향은 안정적인 위탁가정 배치와 피학대아동과 위탁부모, 친부모에게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감소되거나 중화될 수 있었다(Fein and Maluccio, 1992: 340). 즉, 위탁보호 기간 동안 안정적인 관계 형성과 지속성 보장, 또한 집중적 서비스 제공이 아동의 불안 감소와 적응의 성패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위탁보호 기간 동안 피학대아동의 안녕(well-being), 행동상의 기능, 정서상의 발달, 학업수행능력 영역에서 전반적인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는 것과 많은 피학대아동들이 가정위탁보호과정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Fanshel, Finch, and Grundy, 1990; Minty, 1999; Wedeven, Pecora, Hurwitz, Howell, and Newell, 1997).

페인 외(Fein, Maluccio, Hamilton, and Ward, 1983)는 2년 이하의 단기위탁보호를 받고 약 200명의 아동들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그 이후 페인 외(Fein et al., 1990)는 2년 이상 장기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약 800명의 아동들의 기능을 연구하였는데 이 두 개의 연구에서 위탁부모를 주요 정보제공자로 하면서 학교에서의 기능, 행동, 정서와 발달적인 기능, 가족적응 측면에서 위탁아동을 평가하였다. 단기위탁보호아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업과 관련한 기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역에서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 개인의 양육 내력, 가족소득, 위탁부모 부부간의 상태에 따라 아동들의 기능에 대한 결과는 달라졌다. 장기위탁보호 아동에 관한 전반적인 기능 사정에서는 여자, 흑인, 비 장애인 아동, 어린 아동일수록 건강하게 기능하였다. 이런 어린 아동들은 대부분 최근에 배치된 아동일수록, 배치 경험이 적을수록 건강하게 기능하였다. 또한 아동이 친부모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위탁부모의 연령이 많은 가정에 배치된 어린 아동일수록 잘 기능하였다. 그 어린 아동들은 다른 위탁가정으로 옮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위탁가정 배치 후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위탁아동과 관련된 연구결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의 학업수행과 관련된 것이 주요한 것이었다(Blome, 1997; Fein et al., 1983; Fein et al., 1990). 나이든 아동일수록 친 가정문제와 행동상의 문제로 인하여 위탁가정의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친 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었다(Fanshel et al., 1990).

외국에서는 친 가정으로의 복귀와 아동의 정체성 맥락에서 부모 접촉을 강조하고 부모 접촉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을 그들의 친부모와 재결합시키는 것은 아동의 발달에서 '가정'이라는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반영하는 아동복지의 전체를 반영하고 있다(Maluccio, Fein, and Davis, 1994). 하이트(Haight, 2004)는 위탁양육보호 기간동안 친부모와 아동간의 애착관계 형성을 위하여 친부모와의 접촉과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러 연구들에서 아동과 친부모의 방문이 가정과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외상에 대한 정서적인 안락감을 줄 수 있으며 아동의 기능을 증가시키고 가족재결합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Fanshel, 1982; Festinger, 1994). 그러나 가족 재결합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친 가정에서 떠나 있던 아동이 친가정의 가족환경으로 아동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다. 친 가정과 떨어져 있는 동안 아동과 부모 양쪽 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며, 새로운 관계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대가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육체적, 정신적인 재결합을 촉진시킬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Wulczyn, 2004).

피학대아동들의 친부모와의 경험과 그들이 친부모들과 어떻게 분리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위탁보호과정에서 친부모와의 접촉관계가 위탁아동들의 새로운 보호자와의 관계형성과 적응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Levy and Orlans, 1998). 신시아(Cynthia, 2004)는 친부모와 접촉이 적을수록 아동의 적응능력이 더 좋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친 가정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위탁보호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상처를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위탁가정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어린 아동일수록(Borgman, 1982; Maluccio and Warsh, 1993) 친부모와의 접촉은 아동의 적응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아동과 친부모의 방문이 가정과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외상(trauma)에 대한 정서적인 안락감을 줄 수 있으며 아동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가족재결합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Fahlberg, 1978; Fanshel and Shinn, 1978). 국내 연구에서도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친부모와의 접촉이 새로운 환경의 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며 장기적인 보호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노혜련, 1999; 정선옥, 2002).

위탁아동의 적응은 위탁부모뿐만 아니라 위탁가정의 친자녀를 비롯한 구성원들, 친부모, 그리고 사회복지담당자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베릭 외(Beric, Barth, and Needell, 1994)는 친인척위탁부모와 일반위탁부모 등 위탁보호형태별로 피학대아동의 적응에 관한 요인을 연구하면서 친인척보호와 일반위탁보호를 비교 검토하였을 때 대부분 친인척 보호하의 아동들이 일반위탁가정의 아동들보다 정신적 건강문제나 행동적 문제가 더 적게 발생하였으며 보호받는 동안 부당한 처우나 위험에 대한 보고가 더 적다고 하였다. 말루시오(Maluccio, 1996)는 피학대아동에 대해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빈번하게 친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를 하였으나 분리보호에 따른 많은 위험과 위탁가정 배치의 과정에서 피학대아동들이 위탁가정으로부터 표류현상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볼크진(Wulczyn, 1991)은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부모의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하였고, 친 가정으로의 복귀는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 가족보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족보존에 대한 근거에는 아동은 친부모에 의해서 양육될 때 가장 좋다는 아동복지 정책의 가정이 강조되고 있다.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을 그들의 친부모와 재결합시킨다는 것은 아동복지 시스템에서 주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결합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Wulczyn, 2004), 우리나라에서도 친가정과의 결합이 아동복지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알지만 실천현장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나 실천은 매우 적다. 현재 친가정으로부터 피학대아동들이 많이 분리되고 있는데 그 아동들의 친 가정복귀에 대한 인식과 친 가정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개입이 없다면 향후 아동복지에서는 중대한 평가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인스월스(Ainsworth, 1998) 그리고 페인과 스태프(Fein and Staff, 1993)의 연구에서는 기관이 가족보존을 위해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복잡적이고도 심각한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피학대아동의 경우에도 아동과의 재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록 어떤 부모들

은 적절한 양육자가 될 수 없을 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아동들의 기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유사하게 어떤 부모들은 비록 아동과 함께 살지 못하더라도 혈연의 끈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친가정에 대한 서비스는 정서적 지지, 부모역할교육, 지역사회자원에 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원 제공, 그리고 아이들을 위하여 친부모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또한 선택적으로 위탁부모는 친부모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Ainworth, 1998: 4).

지금까지의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볼 때 피학대아동의 위탁보호는 아동의 위탁가정에서의 적응과 친가정 복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3. 조사 방법

#### 1) 연구 질문

위에서 언급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 질문은 “피학대아동의 위탁가정에서 적응과정은 어떠한가?”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학대 아동의 위탁가정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위탁가정에서 피학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셋째, 아동의 위탁가정에서 적응이 아동의 학대후유증 회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넷째, 위탁보호과정에서 아동의 친 가정 복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 2) 참여자 선정과 표집 방법 및 자료 수집 기간

연구 참여자는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과 위탁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아동학대예방센터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학대 아동을 제외한 피학대아동 중에 위탁가정에 배치된 3가정을 중심으로 3명의 위탁아동과 2명의 위탁 모, 1명의 위탁 부, 그리고 2명의 위탁아동담당 사회복지사 등 총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 선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 배치된 피학대아동들 중에서 위탁 기간이 1년 이상인 아동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는데, 연구자는 최소한 위탁 기간이 1년 정도는 되어야 위탁가정에서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하였다. 연구자는 조사의 성격상 비 확률표집 방법 중 목적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위탁아동의 연령은 만 7세 이상부터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연령인 16세까지로 제한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그 아동들이 배치되어 있는 위탁부모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가정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의 면접 접근성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심층면접과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간은 2004년 10월 15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지속적 자료 분석을 통해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참여자 선정과 분석과정은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면접의 빈도는 2회를 기본으로 실시하였고 소요되는 시간은 회기 당 1-2시간으로 자료가 더 요청될 경우 추가 면접을 실시하였다.

### 3) 자료 분석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수집된 녹음자료를 텍스트로 필사하여 이를 원자료로 사용하고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and Corbin, 1990)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분석하고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근거 이론적 접근에서는 이론적 관련성을 가진 개념들을 근거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며 분석하는 동안 새로운 차원,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자료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이론적 포화상태) 자료와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며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의 단계를 거쳐서 새로운 이론을 생성해 나가는 것이다. 개방코딩 단계에서 연구자는 개념의 일반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면서 필사된 면접 자료를 줄 단위로 비교하는 분석을 기본으로 단락, 자료 전체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분석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개념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개념은 그 유사점과 차이점에 따라 범주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축 코딩 단계에서 범주와 하위 범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정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별 사례들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마일즈와 휴버만(Miles and Huberman, 1994)<sup>1)</sup>의 사례별에 따른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범주들을 통합하여 이야기윤곽을 적어보았다. 위너와 쇠플레(Werner and Schoepfle, 1987)가 제시한 시간에 따른 정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동의 위탁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아동의 적응과정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연이어 발생하는 현상들을 범주화하여 종합적으로 묘사하였다.

### 4) 신뢰도<sup>2)</sup>

본 연구에서 연구의 신뢰성(credibility)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아동인 주요정보제공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위탁아동들의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탁부모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한편 위탁아동에 대한 신문보도, 인터넷 자료들을 함께 활용한 자료의 삼각화를 이루었다. 또한 면접 녹음 내용을 수차례 반복하여 들음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의견과 관점을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하였으며 면접이후 얻어진 정보가 참여자의 의도와 같은지 연구 참여자를 통하여 재확인하

1) Miles와 Huberman(1994)은 “Qualitative Data Analysis” 책을 통해 질적 자료의 진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매트릭스, 그래프, 차트, 네트워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료 진열을 통해서 자료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나타내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어떻게 결론이 정당화되도록 도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연구자는 Miles와 Huberman가 제시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 진열 방법을 활용하여 명확하고 함축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진열하고자 하였다.

2) Lincoln과 Guba가 제시한 신뢰성 준거 틀을 참고하였다(유태균,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1998).

였다. 이러한 과정이 참여자는 본 연구자가 현장에서 수년간 가정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형성된 관계로부터 오는 연구자의 편견과 참여자의 반응성을 줄일 수 있었다. 더불어 연구자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 간의 오랜 기간의 관계형성이 오히려 자료에 대한 성급한 해석이나 과잉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양적 연구의 외적타당도에 상응하는 질적 연구의 전환가능성(transfe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사례인 위탁보호과정에서 부적응 학대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비교하였고 외국의 문헌의 비교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보충하였다. 의존가능성(dependability)을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 전공 교수와 석박사과정의 동료 10여명으로부터 개념과 범주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연구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reproduci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사본의 면접 원 자료를 감사 자료로 남겼다.

## 4. 조사 분석 결과

###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위탁 아동 3명, 위탁부모 3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위탁아동은 여아가 1명(15세), 남아가 2명(8세, 12세)이고 위탁부모는 여성이 2명(43세, 56세), 남성이 1명(45세)이었으며, 사회복지사는 2명의 여성(27세, 30세)이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위탁아동

	성별	나이	위탁보호 발생 요인	학력	위탁기간	형제수 (아동포함)
A	여	15세	알코올 문제를 가진 친부의 학대, 친모 가출	중재	12개월	3명, 함께 배치
B	남	12세	비혼부, 방임	초재	6년	없음
C	남	8세	부모이혼, 친부학대, 친모 가출	초재	15개월	2명, 함께 배치

위탁부모

	성별	나이	위탁보호 신청 동기	학력	직업	위탁보호경험	친자녀수
A	여	43세	사회봉사	고졸	주 부	없음	2명(동거)
B	남	45세	사회봉사	대졸	목회자	있음	2명(동거)
C	여	56세	사회봉사	고졸	주 부	없음	4명(비동거)



사회복지사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직위	경력	비고
A	여	27세	아동학대예방센터	사회복지사	3년	
C	여	30세	가정위탁지원센터	사회복지사	2년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A가정

참여자 A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은 15세로 현재 중학생이다. 위탁 양육된 지 12개월이 되었고 아동을 포함하여 3명의 남매(11세 여아, 9세 남아)가 함께 위탁 보호되고 있다. 아동의 친부는 무직 상태이고 기초생활 수급권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다. 아동의 친모가 5년 전 가출 이후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친부는 평상시에는 온순한 편이지만 음주 후에는 아동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문을 걸어 잠가서 아동들을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었다. 술을 마시면 집단의 물건을 아동들에게 던져서 아동들의 얼굴과 몸에 흉터가 많이 있으며 학교도 가지 못하게 하여 자주 결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인근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여 접수된 경우이다. 아동들이 시설보호를 거부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뢰되어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다. 위탁모는 두 명의 딸(15세, 12세)이 있으며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직장생활을 계속하였으나 위탁아동들이 온 이후로 직장을 그만 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2) B가정

참여자 B가정에서 위탁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12세 남아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아동이 6세 때 위탁가정에 오게 되었고 아동의 친부는 당시 연령이 20대 초반의 미혼 부 상태였다. 아동을 친조부모가 키우고 있었으나 친조부가 조모의 사망 후 재혼을 하였는데 재혼한 조모가 아동을 학대하고 친부 또한 집을 나간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혼자 있는 아동을 위탁부가 발견하여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아동을 알게 되었고 아동 친부의 요청으로 현재까지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아동의 위탁가정은 시골의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가정으로 2명의 친자식이 있으며 위탁아동 외에 다른 아동 2인도 함께 위탁 보호 하고 있다. 위탁 부는 사회봉사 부문에서 국무총리 상도 수여받은 바 있다.

(3) C가정

C가정의 위탁아동은 8세 남아로서 초등학교 1학년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남자 동생과 함께 위탁 보호되고 있는데 아동의 친부모의 이혼 후 친부가 경제적인 상황으로 집을 자주 비워서 아동들이 자주 굶고 방임되고 있던 과정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되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아동의 위탁 부는 공무원으로 퇴직 후 개인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이다. 위탁모는 10년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고 친자녀들은 결혼한 상태로 모두 분가하여 살고 있다.

## 2) 자료에서 나타나는 주요개념의 범주화

피학대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들을 유사한 개념을 중심으로 재분류하였다. 연구자는 면접을 통해 얻은 근거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식탐, 표현력 부족, 교사의 인식부족, 자신의 정체성 찾기 등 140개의 개념과 이 140개의 개념을 다시 26개의 범주로 분류하였고, 또 다시 26개의 범주를 10개의 상위범주를 도출되었다. 개방코딩에서 얻은 개념을 범주화한 결과를 요약·정리 하면 <표 2>와 같다.

### (1) 신체·행동상의 학대 후유증

피학대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에 오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친부모와 격리되어 긴급하게 배치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신체적인 후유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체적 후유증과 행동상의 후유증이 위탁과정 초기에 나타났다.

위탁가정 적응과정에서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식탐, 폭식, 편식, 불결한 위생상태, 대소변 훈련 부족 등의 개념을 통해 신체적 후유증이라는 범주로 통합하였다.

위탁초기에 위탁부모들은 아이들의 대소변문제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나타났다. 신체적 후유증과 더불어 거짓말, 대인기피, 의욕상실, 무관심, 학교결석, 야뇨증, 욕설, 공격적 행동, 자폐 증상 등의 개념이 도출되었는데 그것은 행동상의 후유증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러한 두 개의 범주들을 합하여 '신체, 행동상의 학대 후유증'이라는 상위범주가 되었다.

<표 2> 피학대아동의 위탁가정 적응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과 범주

상위 범주	범 주	개 념
신체·행동상의 학대 후유증	신체적 후유증	식탐, 폭식, 편식, 설사, 자주 보채고 울먹임, 척추골절, 피부이상, 대소변 훈련 부족, 감기, 불결한 위생상태, 인스턴트음식에 길들여져 있음.
	행동성 후유증	거짓말, 대인기피, 의욕상실, 무관심, 학교결석, 야뇨증, 욕설, 폭력, 언어발달 장애, 자폐 증상, 공격적 행동
정서적 고립	낮은 자존감	외로움, 불안, 냉소적인 눈빛, 자폐증세, 비사교적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자기 존재 중요성 확인받고 싶어 함 사랑받고 싶어 함,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표현 능력 부족	표현력 부족, 자기의견이 없음. 언어표현능력 떨어짐. 논리력 부족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생활에 대한 낮은 의욕	학교교사의 부정적 태도, 학습능력 떨어짐, 친구관계 부족, 비사교적 수업 도중 사라짐
	담임교사의 부정적인 태도	교사의 인식 부족, 아동에 대해 답답해 함, 위탁모에게 불만을 이야기함, 아동이 수업분위기 저해한다고 생각함, 과제를 해가지 않은 아동에 대해 위탁부모에 대해 부정적 인식.

〈표 2〉 이어서

위탁가정 탐색과 시험	위탁부모 시험	위탁모가 밥 안준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 유발 위탁모에 대해 이웃들에게 나쁘게 말함, 일부러 반항, 문제행동 계속하여 위탁모의 반응을 살핌,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아 아동 자신을 찾아다니는 것을 유도
	다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위탁모에게 자신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언급, 친부모에 대한 학대의 기억 지우고 싶어함, 위탁부모와 친부모 비교, 주변사람들에게 친엄마라고 소개함
	위탁부모의 좌절감	위탁아동을 더 잘해주는 것에 대한 친자녀 스트레스, 위탁아동이 친가정에 대해 과장하여 이야기함, 위탁아동의 반항이 계속됨
위탁부모의 적극적 부모역할	공감대 형성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애정을 가진 일관성 있는 훈육, 칭찬, 가족회의를 통한 구성원으로써 소속감, 역할 부여, 편지 쓰기, 위탁부모보수교육을 통한 부모역할 훈련
	자신감 향상 지지	편지쓰기, 학교친구들 집에 초대, 장점 강조, 문제점 지적 횟수 줄이기 칭찬
	한 인격체로서 존중	가족행사 때 아이의 의견을 묻고 반영, 학교교사의 잘못된 평가에 대해 아이의 입장을 믿어줌
무조건적인 수용	엄마역할 부재	엄마 손길이 성장기에 없었음. 인스턴트우주의 식습관, 청결하지 못한 위생상태, 아침밥 결식, 엄마에 대한 그리움.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	아동의 감정 수용, 위탁모를 엄마라고 호칭, 위탁모 젓가슴을 만짐, 안기고 싶어함, 나에게도 엄마가 생겼다고 일기장에 기록, 엄마에 대한 편지, 위탁모와 스킨십을 통한 대화, 격려, 아이의 말에 귀기울여줌.
	가족에 대한 갈구	나에게도 엄마가 생겼다. 가족에 대한 갈구, 영원함은 가족이다.
친자녀와의 관계	친자녀와 공평한 관계 형성	친자녀와 싸움, 갈등, 화해, 친자녀를 더 아낀다는 위탁부모, 친자녀 스트레스로 병원 입원, 친자녀와 구별 없이 연령으로 서열 세움.
	긍정적인 경쟁관계 효과	친자녀의 위탁아동 배려, 위탁아동이 친자녀의 모범행동 모방, 학습에서 경쟁적 관계의 긍정적 효과,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자신의 욕구 자제
위탁가정의 구성원과의 신뢰관계 형성	가족구성원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아동의 문제행동의 이유를 알고 이해하게 됨. 특별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아동을 감싸 안음. 가족전체 여행, 놀이, 화목한 집안 분위기, 신앙생활을 통해 정서적 안정
	위탁가정에서 역할 강조	위탁가정에서 역할 강조, 가족 전체 여행, 무조건적인 수용, 가족회의를 통한 역할 분담 및 평가, 서로에 대한 비판과 칭찬 집안일 도울 수 있게 유도
	위탁가정 적응	위탁모와 친밀한 관계 형성, 위탁모를 닮아감, 이웃의 평가가 달라짐, 집에 일찍 귀가, 학습에 흥미를 느낌, 자주 웃고 음식도 함께 만들, 함께 가족 연주, 혼자자 아니라는 생각 표현
학대후유증 회복	정서적 안정	자신에 대한 신뢰감 높아짐, 숙면, 스스로 과거 이야기 함. 지나친 역할 수행으로부터 벗어남.
	문제행동 감소	야뇨증 사라짐, 식탐조절, 거짓말 감소, 결석률 감소
	친부모에 대한 거부	친부모에 대한 분노 감소되었으나 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음, 위탁부모의 요청에도 친부모 만남 거부. 친 가정 복귀 후 다시 위탁가정으로 돌아옴, 전문가 역할 부재.
희망을 찾는 아동	자신의 정체성 찾기 시작	자신의 정체성 찾기 시작, 특별한 부분 재능 발견, 위탁부모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 함. 미래의 꿈을 이야기함.
	자존감 향상	누군가 돕고 싶어 함, 자신보다 어린 위탁아동 잘 보살핌, 자신감 향상, 말수가 늘어남, 자신의 의견 표현, 집중력 향상
	문화 활동	피아노, 오키리나, 십자수 놓기 등 취미생활을 통한 공격적 행동의 에너지 전환, 집중력 향상
	학교에서 수행능력 향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학습에 대한 의욕 가짐, 영어, 국어 등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 높은 성적 올려 자신감 향상, 교사의 인식 변화, 친구관계 적극적 태도

## 하위범주 가. 신체적 후유증

처음에 아이들이 왔을 때 냄새가 너무나 심하고 얼굴은 무표정하고 눈빛이 냉소적이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밤에 이불에다 소줌을 싸서 이불빨래를 하느라 힘들었다. 병원에 가보니 척추골절 때문에 잘 걷지 못한다고 하더라. 대변을 봤는데 기생충이 많이 나왔다. 밥을 어른 공기로 3공기는 먹고도 또 먹으려고 하더라. (사례 B가정. 식탐, 폭식, 대소변 훈련 부족, 불결한 위생상태)

## 하위범주 나. 행동성 후유증

위탁 배치 후 한 달쯤 지났을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다. 아침에 분명히 밥도 먹고 인사하고 학교 간다고 간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니..그동안에도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많았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다. 아이가 혼자 방안에만 있으려고 한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사례 A가정. 학교결석, 자폐증상)

## (2) 정서적 고립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은 초기 적응 과정에서 매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 외로움과 불안, 냉소적인 눈빛, 자폐증세, 비사교적인 개념들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한편,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연구자가 피학대아동들에게 어떤 것을 물어보아도 자기의견이 없고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능력이 떨어지고 논리력이 부족한 것 등의 개념들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개념들을 '자기표현 능력 부족'이라고 범주화하였다. 이 두 가지의 범주를 '정서적 고립'이라는 상위범주로 명명하였다.

## 하위범주 가. 낮은 자존감

항상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 집에서 늘 혼자 있었나 봐요. 심지어 밥 먹는 것까지 혼자 다 해야 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안 하고 눈을 잘 안 마주쳐요. 처음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말하기를 저의 눈빛이 냉소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안증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확인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사례 C 가정. 자폐증세, 비사교적, 존재를 확인 받고 싶어 함. 불안, 냉소적 눈빛)

## 하위범주 나. 자기표현능력 부족

처음에는 애들이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학교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아이가 너무나 말을 안 해서 답답하다는 것이었고, 대담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문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례 B가정. 자기의견이 없음, 언어표현능력 떨어짐)

### (3) 학교생활부적응

위탁가정에 배치되어 보호받는 과정에서 아동은 전에 다니는 학교를 위탁가정이 위치해 있는 주소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학대아동의 경우 친 가정에서 다니던 학교에서도 대부분 부적응하는 행동을 보여 결석이 잦고 학업수행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학을 하여 위탁가정에서 다니는 경우에도 그런 문제들이 연장선에 있거나 더 심해진다고 나타났다.

아동의 비사교적 태도, 수업도중 사라짐, 친구관계부족, 학교교사의 부정적인 태도 등의 개념들이 도출되었는데 그 개념들은 다시 '학교생활에 대한 낮은 의욕'이라는 범주로 통합하였다. 또한 교사의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부족, 아동에 대해 답답해하거나 수업분위기를 저해한다는 교사의 인식 등은 '담임교사의 부정적 태도'라는 범주로 통합하였다. 위의 두 가지 범주를 '학교생활 부적응'이라는 상위 범주로 명명하였다.

#### 하위범주 가. 학교생활에 대한 낮은 의욕

처음 한 달 정도는 그냥 가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나를(위탁 모) 잘 따르니까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학교 담임선생님이 사이가 학교에 안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 학교에 가서는 가방만 놓고 수업시간에 밖에 나가 있었고 아이들과 어울리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례 A가정. 수업도중 사라짐, 친구관계 부족)

#### 하위범주 나. 담임교사의 부정적인 태도

선생님이 아이를 미워하다 못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위탁 모) 직접 '위탁모가 애를 키우겠다고 데리고 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키웁니까!'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얼마나 속시 상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사례 C 가정. 담임교사가 위탁부모에게 위탁아동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함.)

### (4) 위탁가정 탐색 및 시험

피학대아동들이 위탁가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친가정과 친부모로부터 격리보호되기 때문에 위탁 부모를 신뢰하고 믿음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대상에 대해 시험을 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위탁모가 밥을 안준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가정에 대해 나쁘게 평가하게 하고 동정 유발이나 일부러 반항하고 문제행동을 계속하여 위탁부모의 반응을 살피는 등의 개념은 '위탁부모 시험'이라는 범주로 통합하였다. 또한 위탁모에게 자신을 다시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언급, 친부모와 위탁 부모를 비교, 주변사람들에게 위탁부모를 친부모라고 소개함 등의 개념은 위탁아동의 '다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또한 그런 과정에 위탁부모가 정서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친자녀보다 위탁아동에게 더 잘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문제로 친자녀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탁아

동의 반항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개념들은 '위탁부모의 좌절'로 범주화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범주들을 '위탁가정 탐색 및 시험'이라는 상위범주로 규정하였다.

#### 하위범주 가. 위탁부모 시험

아동학대예방센터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에게 '왜 아침밥을 안주고 학교 보내느냐'는 것이었어요. 아침마다 컵çal들여 따뜻한 밥을 해서 먹이면서 학교로 보냈다는 것을 왜 아이가 반대로 이야기 했을까는 생각에 아이에게 이슈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이가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요. 아이가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았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나의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이를 때리거나 화를 내고 너 못 키우겠다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사례 A가정. 문제행동을 계속하여 위탁부모의 반응 살핌)

#### 하위범주 나. 다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엄마(위탁 모)한테 버림받는 것 싫어요, 내가 확실히 고쳐 볼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놀랐어요. 어떻게 아이 입에서 버림받는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지 가슴이 아팠지요. 슈퍼 아저씨에게 '우리 엄마'라고 소개를 하고 철대 위탁가정 이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사례 C가정. 자신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언급, 친엄마라고 소개함)

#### 하위범주 다. 위탁부모의 좌절감

아이가 학교에 가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학교에 안가고 그랬을 때 그만 두려고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더니 상담원이 전화로 힘든 상황을 들어주었어요. 그래도 아이를 보낸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는데 아이가 관심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좀 더 인내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사례 A가정. 아동의 반항 계속됨, 전문가와의 상담)

### (5) 위탁부모의 적극적 부모역할

위탁부모로서 위탁아동을 보호하면서 친부모와 똑같은 부모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그런 위탁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적극적이나에 따라 위탁아동의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애정을 가진 일관성 있는 훈육, 칭찬, 가족회의를 통한 구성원으로써 소속감, 역할 부여, 편지쓰기 등의 개념을 '공감대 형성'으로 범주화하였으며 학교친구들을 집에 초대, 장점 강조, 문제점 지적 횟수 줄이기, 칭찬 등은 '자신감 향상 지지'라는 범주로 통합하였다. 또한 가족행사 때 아이의 의견을 묻고 반영, 학교교사의 평가에 대해 아이의 입장을 믿어줌 등의 개념은 '한 인격체로서 존중'이라는 범주로 통합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범주는 다시 '위탁부모의

적극적 부모역할'이라는 상위범주로 규정하였다.

#### 하위범주 가. 공감대 형성

아이와 공감대 형성이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고, 편지도 쓰고 가족회의도 하고 이제는 내가 편지를 쓰지 말라고 해도 아이가 나에게 편지를 너무 많이 써요. 편지 내용 중에 그 아이의 진실한 마음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또 나는 작은 것이라도 아이에게 놀랄 정도로 칭찬을 해줍니다. 온 가족이 있는 곳에서 '너 이런 면도 있었구나. 너무 잘 썼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해주면 아이가 무척 좋아하고 나를 친구나 친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례 A 가정. 애정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훈육, 칭찬)

#### 하위범주 나. 자신감 향상 지지

아이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집에 와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아이 친구들을 불러다 집에서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초대해서 먹이는 거죠, 엄마로써 그 방법 밖에 없으니까요. 친구들 불러서 우리 아이는 진짜 착한 애다, 너희들이 좋은 친구를 얻었고, 너희들도 씩씩한 애들이니까 우리 아이라고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격려해주면 친구들이 잘해주고 아이도 부듯한 느낌이 드나 봐요,  
(사례 B가정. 학교친구들을 집으로 초대)

#### 하위범주 다. 한 인격체로서 존중

제 아이가 공부시간에 다른 애들에게 말시키고 공부 못하게 방해했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시험지 안가지고 가서 미안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애인데 안 가져온 상황에서 옆에 애까지 공부 못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가족들도 진지하게 '그렇게 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아이도 눈을 똑바로 뜨면서 '사실은 내 옆 사람에게 말 안 시키고 공부 방해 안 했거든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미안한데 옆 친구에게 내가 장난치고 그러겠어요?' 라고 했어요.  
(사례 A가정. 학교교사의 잘못된 평가에 대해 아이의 입장을 믿어줌)

#### (6) 무조건적인 수용

위탁아동은 부모로부터 수용을 받지 못하였고, 버림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탁부모가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수용을 해주고 아이에게 스킨십을 해주었을 때 위탁부모를 따르게 되었다. 무조건적인 수용에는 엄마역할 부재,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갈구라는 세 가지 하위범주를 통합하여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상위범주로 명명하였다.

### 하위범주 가. 엄마역할 부재

사람에게 엄마의 존재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아이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엄마의 손길이 유아기 때부터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안아주면 참 좋아하고 내 무릎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자고 나를 화장실도 못 가게 자기 옆에 묶어 두려고 해요. 아이들이 엄마가 없어서 식습관이 엉망이었어요. 매일 라면하고 과자만 먹더라고요. (사례 C가정.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인스턴트위주의 식습관)

### 하위범주 나. 가족에 대한 갈구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손 잡고 풍선을 들고 다니면서 놀이기구도 타고 어린이날 같은 때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 아이 최고!” 라는 소리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아이의 편지에 ‘영원함은 가족이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례 B가정. 영원함은 가족이다.)

## (7) 친자녀와의 관계

위탁부모들도 위탁아동과 친자녀와의 관계형성이 잘 안되어 친자녀가 어긋나가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위탁아동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때문에 위탁아동과 친자녀와의 관계가 위탁가정 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위탁부모가 친자녀와 위탁아동과 구별 없이 연령순으로 서열을 세우는 것을 ‘친자녀와의 공평한 관계형성’이라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또한 친자녀의 위탁아동을 배려, 위탁아동이 친자녀의 모범적인 행동을 모방, 학습에서 경쟁적 관계의 긍정적 효과,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자신의 욕구 자제 등의 개념을 ‘긍정적인 경쟁관계 효과’ 라는 범주로 통합하였다. 위의 두 가지 범주는 ‘친자녀와의 관계’ 라는 상위범주로 명명화하였다.

### 하위범주 가. 친자녀와 공평한 관계형성

친자녀와 위탁아동 간에 먹을 것 하나라도 차별을 주게 되면 갈등과 문제가 된다. 장사를 지낼 때 가족들이 우선순위로 흠을 객토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 차례가 되니까 친척들이 ‘야! ○○아(친자녀) 네가 먼저 해라’ 그러는 거예요. 친자식이니까 당연히 먼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위탁아동이 나이순서대로 먼저니까 먼저 하라고 했어요. 위탁아동이 아با인 내가 먼저 하라고 하니까 자존감이 매우 높아진 것 같았어요.

(사례 B가정. 친자녀와 구별 없이 연령순으로 서열 세움)

### 하위범주 나. 긍정적인 경쟁관계 효과

위탁자녀가 친자녀를 보고 배운다. 친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경쟁



심히 생긴다. 그래서 옆에서 나도 그냥 했다. 재밌다. 어려워도 그냥 했다. 그래도 침수는 잘 모르지 않았는데 옆에서 친자녀가 많이 도와줬다. 이번에 영어 시험을 100점 맞아서 너무 기뻐다.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잘 할 줄은 나도 몰랐다.  
(사례 A가정. 학습에서 경쟁적 관계의 긍정적 효과)

(8) 위탁가정의 구성원과의 신뢰관계 형성

위탁아동들이 위탁가정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위탁가정의 구성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위탁아동의 입장뿐 아니라 위탁부모나 가정의 구성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이 위탁가정 구성원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위탁가정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나타났다.

아동의 문제행동의 이유를 알고 이해하게 됨, 특별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아동을 감싸 안음, 가족전체여행, 나들이, 화목한 집안 분위기, 신앙생활을 통한 정서적 안정 등의 개념들이 도출되었는데 그것은 '가족구성원과 긍정적 상호작용'이라는 범주로 통합하였다. 위탁가정에서 역할 강조, 무조건적인 수용, 가족회의를 통한 역할 분담 및 평가, 서로에 대한 비판과 칭찬, 집안일을 도울 수 있게 유도 등의 개념은 '위탁가정에서 역할 강조' 범주로 통합하였다. 위탁모와 친밀한 관계 형성, 위탁모를 닮아감, 이웃의 평가가 달라짐, 집에 일찍 귀가, 학습에 흥미를 느낌, 자주 웃고 음식도 함께 만듦, 함께 가족 연주 등의 개념들은 '위탁가정 적응'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범주들을 '위탁가정의 구성원과의 신뢰관계 형성'이라는 상위범주로 명명화하였다.

하위범주 가. 가족구성원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아빠랑 있을 때는 한 번도 가족들끼리 놀러 안 갔는데 지난여름에 바다에 갔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진짜 재밌게 놀았죠, 모래 백사장 위에서 '우리 집에 왜왔니.' 놀이 하고 물장구 치고 텐트에서 자고 자다 일어나서 또 게임하고 엄마도 모든 게임에 다 참석했어요. 요즘은 마당에서 배드민턴 치고 하는 것이 좋아요. 아빠하고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여기 와서 처음이에요. 가족끼리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가족들끼리 놀면서 서로 너무 친해지는 것 같고 같이 놀다보면 정말 같은 핏줄보다 더 소중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사례 A 가정. 가족 전체 여행, 화목한 집안 분위기)

하위범주 나. 위탁가정에서 역할 강조

아이가 청소를 하는데 다른 가족들과 달리 엄마가 쉬운 것 시키니까 엄마한테 할 말 있다면서 누나들이 청소하는 거 같이 하게 해 달라, 나도 청소를 돕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이 너무 곱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자신감, 적극성이 더 생기는 것 같네요. 누나들이 아이에게 '나 좀 도와줘, 너의 힘이 필요해' 라고 하면 참 좋아해요.

(사례 B가정. 위탁가정에서 역할 강조, 집안일을 도울 수 있게 유도)

#### 하위범주 다. 위탁가정 적응

친엄마보다 더 친엄마 같아요. 엄마랑 초등학교 4학년 때 헤어져서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엄마라는 존재는 위탁엄마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최근에 더 많이 변했는데 가정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와 누나가 있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A가정. 위탁모와 친밀한 관계 형성,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표현)

#### (9) 학대후유증 회복

위탁아동들이 친 가정에서 격리 보호 되고 위탁가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배치 초기에 나타났던 아동들의 학대 후유증이 점차 회복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행동상의 학대 후유증이 위탁부모의 평가뿐만 아니라 위탁아동 스스로도 상처가 회복된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의 후유증은 감소되고 있지만 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감정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짐, 숙면, 스스로 과거이야기 하게 됨, 친구관계 좋아짐, 사교적인 모습, 자기 의견 표현 능력 좋아짐 등의 개념은 '정서적 안정'이라는 범주로 통합하였고 야뇨증 사라짐, 식탐조절, 거짓말 감소, 결석률 감소 등의 개념은 '문제행동 감소' 라는 범주로 통합하였다. 또한 친부모에 대한 분노는 감소되었으나 친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음, 위탁부모의 요청에도 친부모를 만나지 않음, 친가정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위탁가정으로 돌아옴, 전문가 역할 부재 등의 개념은 '친부모에 대한 거부' 라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위의 세 가지 범주는 다시 '학대 후유증 회복' 이라는 상위범주로 명명화하였다.

#### 하위범주 가. 정서적 안정

엄마(위탁 모)가 잘 챙겨줘요. 새벽에 꼭 깨워서 소침 싸게 하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들게 해줘요. 엄마가 책도 많이 읽어주고 전에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전에는 내가 동생들 다 챙겨서 학교 보내야 하고 밥해 주고 빨래 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많았고, 아바 심부름까지 다 해야 했으며, 그래서 가출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안 해도 되고 엄마가 알아서 챙겨주니까 마음이 편해요.

(사례 A가정.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짐, 지나친 역할 수행으로부터 벗어남.)

#### 하위범주 나. 문제행동 감소

거짓말, 아이가 소침 싸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런 것도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이가 이제는 식탐도 많이 없고 잘 먹어요. 이제는 먹는 것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살 찌서 안 먹어서 내가 일부러 먹스라고 할 정도예요.  
(사례A, B가정. 식탐조절, 거짓말 감소)

### 하위범주 3. 친부모에 대한 거부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아빠 집에 들어가 살라고 하면 지금은 못 갈 것 같아요. 아빠가 아무리 술을 먹어도 의지를 벗어난 상태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때리지는 말았어야죠. 아빠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다 던졌어요. 아빠는 하루 종일 방안에서 술 먹고 담배피고 밤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학교에 안 보낼 때도 있었고, 내가 아빠 밥을 챙겨줘야 하고 아빠는 일 하나 안했어요. 아빠는 방청소도 안하고 이불을 그대로 깔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빠는 술을 나가서도 마시고 집에서도 마셨어요. 그런 거 떠올라도 식젠 별로 화가 나지는 않지만 아빠랑 산다는 그 자체가 싫어요. 아동학대 선생님이랑 가정위탁선생님들이 나를 아빠한테 보내지 마세요. 계속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사례A가정. 친부모에 대한 분노는 감소되었으나 친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음)

### (10) 희망을 찾는 아동

위탁아동은 학대후유증으로부터 조금씩 회복해 나가면서 주눅 들어 있던 모습과 자신 없어 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었던 모습에서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자신이 관심 있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해 내고 그 부분에 열심히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재능을 발견, 위탁부모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함,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이라는 개념 등을 도출하였는데 그 개념들은 ‘자신의 정체성 찾기 시작’이라는 범주로 통합하였다. 또한 누군가를 돕고 싶어함, 자신보다 어린 위탁아동을 잘 보살핌, 학교성적 향상, 말수가 늘어남, 자신의 의견 표현 활발, 집중력 향상 등의 개념들은 ‘자존감 향상’이라는 범주로 통합하였다. 피아노, 오카리나, 십자수 놓기 등 취미생활을 통한 공격적 행동의 에너지 전환, 집중력 향상 등은 ‘문화활동’으로 범주화하였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학습에 의욕을 가짐, 영어, 국어 등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에 대하여 성적이 올라가 자신감이 향상됨, 교사의 인식변화, 친구관계에 대한 적극적 태도 등의 개념들은 ‘학교에서 수행능력 향상’으로 범주화하였다. 위의 네 가지 범주들을 ‘희망을 찾는 아동’이라는 상위범주로 명명화하였다.

### 하위범주 가. 자신의 정체성 찾기

아이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 스스로 노트를 만들어서 엽경도 쓰고 엽경 내용과 자기의 일상생활을 4컷 만화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내용도 좋지만 만화 그리는 솜씨가 대단했고요. 아동이 무언가 의욕을 가지고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만화가가 되겠다고 말을 했을 때 ‘아이가 이제 거의 우리 집에서 안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 나를 믿어주고 챙겨주는 사람, 엄마(위탁 모)와 함께

살 멋진 집을 지을 거예요. 고아원 같은 것도 지을 거예요. 마당은 넓게 하고 담, 강  
아지를 기를 것은 다 기를 거예요.

(사례 A가정. 특별한 부분 재능발견, 자신의 정체성 찾기 시작, 미래의 꿈을 이야기함)

#### 하위범주 나. 자존감 향상

커서 아동을 위탁보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엄마(위탁 모)의 심정을 알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애들이 많잖아요, 나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이 생활자체가 나를 변화시켰어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다 만족해요, 더 이상 바랄게  
없어요.

(사례A 가정. 누군가 돕고 싶어함. 자신감 향상)

#### 하위범주 다. 문화 활동

아이들이(친자녀) 피아노치고 소카리나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  
서 엄마한테(위탁 모) 피아노학원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손가락이 너무나 아팠지만  
계속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이제는 피아노를 어느 정도 치니까 학원에 안가고 아이  
들이랑 집에서 같이 연주하고 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피아노 같이 치면서 노  
래 부르면 정말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몰래 내 마  
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껴요. 내가 혼자가 아니어서 너무나 좋고 행복해요.

(사례 A가정. 취미생활을 통한 공격적 에너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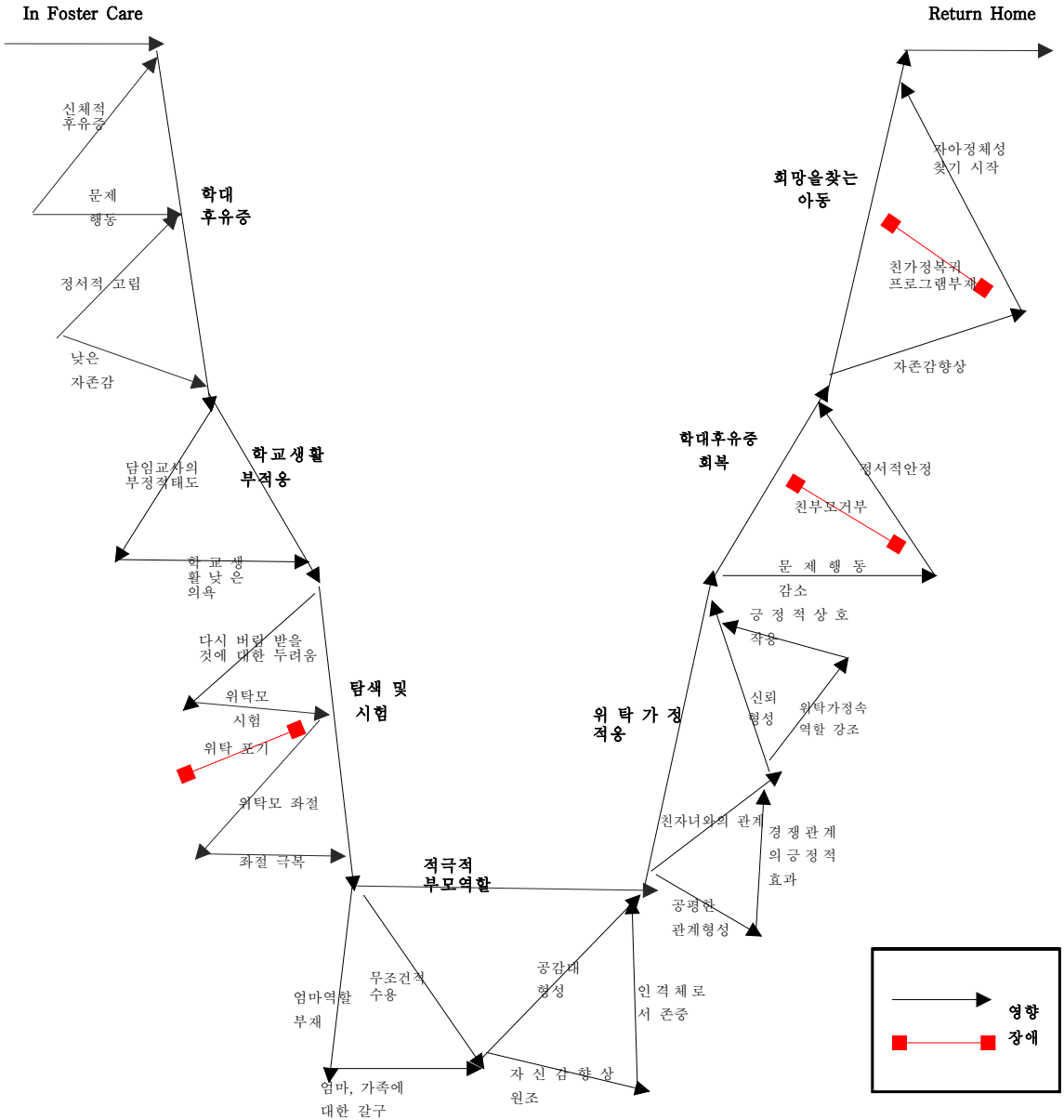
#### 하위범주 라. 학교에서의 수행능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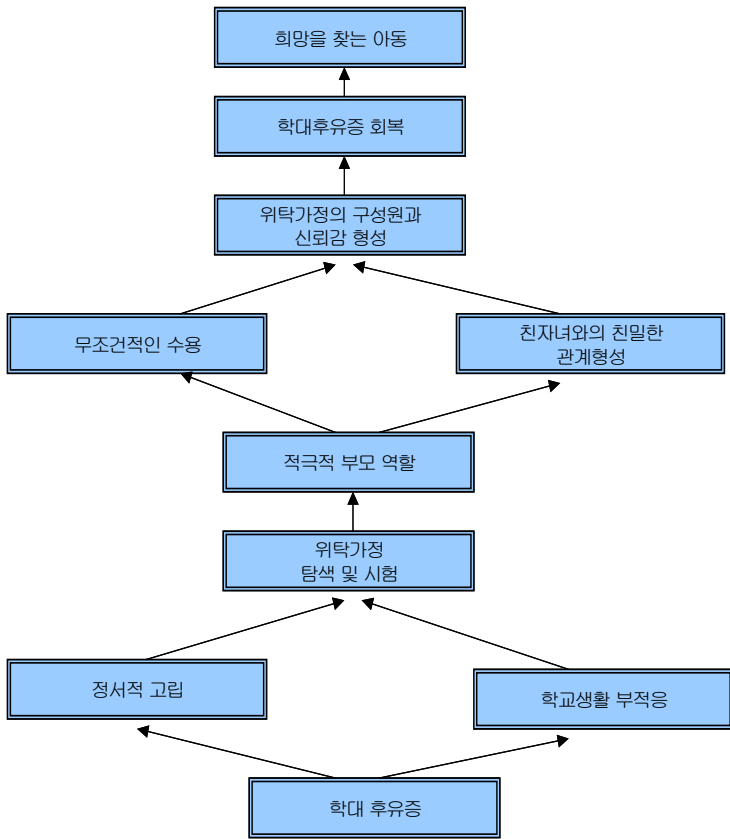
어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너무나 달라졌다고 했어요.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교사가 몰래 숨어서 아이를 지켜보았는데 수업 도중에 사라지지 않고 삼전히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처음에는 말을 안 하고 혼자서만 있었는  
데 지금은 대답도 잘하고 표현도 잘해줘서 선생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친구들  
도 많이 생겼고, 아이가 일단 자기의 삶이 즐거우니까 친구들한테도 잘하는 것 같다.

(사례 A 가정. 교사의 인식 변화, 친구관계 적극적 태도)

지금까지 언급한 개념들과 범주들을 기초로 시간에 따른 정렬 네트워크(Wener and Schoepfle, 1987)를 활용하여 아동의 위탁가정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그림 1>과 같이 진열하였고, 10개의 상위범주에 대한 네트워크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위탁가정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시간에 따른 정렬(Time-ordered)





〈그림 2〉 위탁가정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범주 네트워크

### 3) 피학대아동 위탁가정 적응과정 분석

#### (1) 적응과정 단계 분석

위탁가정에서의 적응과정 분석은 피학대아동이 위탁가정에 오게 되는 초기 시점에서부터 위탁가정에서 구성원과 신뢰를 형성해 나가며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탐색 및 시험단계, 신뢰감형성단계, 학대후유증 회복단계의 3단계로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적응과정 단계별 요인들에 관하여 아동에 대하여 적응과정 3단계별로 마일즈와 휴버만(Miles and Huberman, 1994)의 사례별에 따른 단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3〉 적응과정 단계별 요인 -사례 간 분석

	탐색 및 시험단계	신뢰감 형성단계	학대후유증 회복단계
A	불결한 위생상태, 냉소적 눈빛, 야노증, 식탐, 학교 결석 등 문제행동 반복, 자기 표현 능력 부족, 위탁 모 반응 탐색 이웃에게 위탁모를 나쁘게 이야기하면서 위탁 모 반응을 살핌.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함. 학교생활부적응, 비사교적, 정서적 고립, 외로움.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가서 자신을 찾아다니게 함.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심 유발. 다시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친자녀와의 싸움, 갈등, 화해 친자녀와 긍정적 경쟁관계 가족회의를 통한 친밀감. 위탁모와 스킨십을 통한 대화. 가족여행을 통한 화목한 가족 존재임을 느낌. 아동이 수업분 위기를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교사, 위탁모에게 편지, 병원 입원한 친부의 아동만남의 요청에 대해 아동이 만남을 거부함. 친부에게 받지 못한 것을 위탁가정에서 받기 시작.	학교교사의 인식변화 말수도 늘고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 문제행동 감소, 야노증 사라짐. 이웃의 평가가 달라짐. 일상생활습관의 변화, 위탁모와 닮아감, 과거이야기를 스스로 함. 약 기연주를 통한 정서적 안정, 관심 있는 과목 성적 향상,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함. 자신의 정체성 찾기 시작. 친가정 복귀하고 싶지 않음.
B	친가정에서의 방임의 결과: 자폐증 초기증세, 식탐 신체적인 영양부족, 척추골절 자주 보채고 울먹임 아침밥 결식 인스턴트음식에 길들여짐 공격적, 대인기피, 야노증 또래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음 친부 앞에서 나약한 모습	위탁모의 짓가슴 더듬음 안기고 싶어함 엄마에 대한 그리움 영원함은 가족이다. 친자녀와 친구관계 형성 위탁부모에 대한 믿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친부모와 위탁부모 비교 술 마시는 친부 걱정	나에게도 엄마가 생겼다. 식탐조절 대인관계 능력 향상 5시간 넘게 자전거타고 위탁가정에 혼자서 돌아옴 친부에 대한 무관심 친자녀와 친구관계 형성 미술에 취미를 느낌 화가가 되고 싶은 미래의 꿈
C	야노증, 비사교적, 불안 학교결석, 의욕 상실 인스턴트위주 식생활 친 손자와의 관계 질투 친 손자의 텃새에 울음 다른 가정에 가야 된다는 위탁 모 말에 절대로 못 간다고 애원함, 친가정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자연스러운 변화과정 주변 사람들에게 엄마라고 소개 위탁모와 결혼하겠다는 아동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함 가족들과 소풍 기차여행 팔죽 파티 위탁가정구성원으로써 역할	야노증 사라짐, 표정이 밝아짐 아동의 정서적 안정 여자친구 이야기를 함 학습능력 뛰어난 과학자가 미래 꿈 자주 웃고 음식도 함께 만들 가족들과 소풍 엄마에 대한 그리움 친조부의 부정기적 방문 친 백부 댁 간헐적 방문

(2)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위탁부모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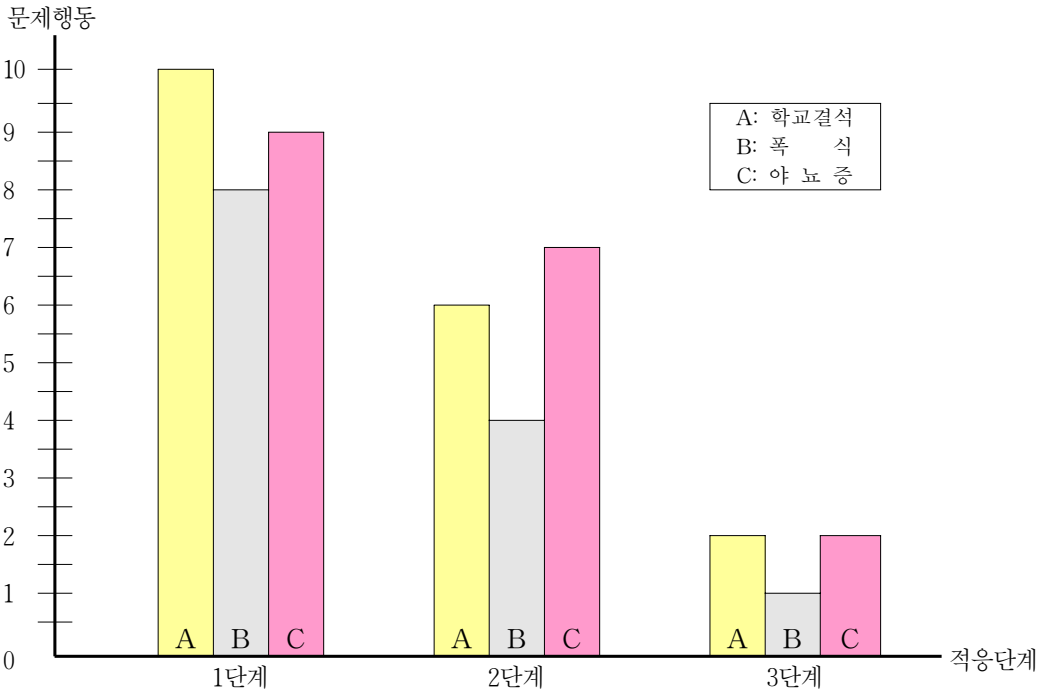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이 처음 위탁가정에 배치되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아동의 문제행동한가지만을 선택하여 아동의 적응 과정에 따라 1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시간상으로는 사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편의상 처음 위탁 당시에 위탁부모를 탐색하고 시험하는 단계, 위탁부모와 신뢰감 형성단계, 학대후유증 회복단계 등의 세 단계별로 평가하였다.

사례 A 아동은 학교결석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였다. 아동은 위탁가정에 오기 전에도 학교를 가지 않은 날이 많았고 그 원인 중에는 술에 취한 친부가 학교를 보내지 않은 적도 있었고 학교가 재미없어서 가지 않은 날도 있었다고 하였다. 위탁가정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담임교사가 위탁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아이를 찾아다니고 그럴 때 너무나 힘이 들고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다른 가정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도가 심하였다. 그러나 아동이 학교에 가지 않고 결석하는 것이 위탁부모와 담임교사의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위탁부모는 아동과의 신뢰형성을 통하여 아동이 공부는 못하여도 학교생활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노력하였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면서 아동은 저절로 학교에 나가게 되고 결석률도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사례 B 아동은 6살 때 위탁가정에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와서 밥을 먹는데 어른 공기 3공기를 먹고도 더 먹으려고 할 정도로 식탐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렇게 먹고는 설사를 계속하였고 항상 쪼그린 얼굴로 울상이 된 상태에서 보채는 것이 발달상 3세 아동의 수준이었다. 아동은 처음에 위탁부모도 노력해 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겠다고 말할 정도로 어두운 표정과 모든 것을 귀찮게 여기고 의욕이 없이 누워 있다가 먹기만 하였다. 그런 아동에게 먹을 것을 조절시키자 계속 보채는 것이 더 심하여져 갔다. 아직 어린 아이에게 위탁모는 자주 안아주고 씻어주고 밖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책을 읽어주곤 하였다. 그리고 조금씩 나누어서 먹는 습관을 계획적으로 실천하게 하였다. 애정이 굶주려서 나타난 현상인지 아동의 폭식은 눈에 띄게 빠르게 조절되어 갔다고 하였다.

사례 C 아동은 밤에 이불에 오줌을 뉘서 위탁가정에 배치한 후 한 달 동안은 하루도 안 빠지고 위탁부모가 이불을 빨았고 그 대안으로 기저귀를 차고 잠을 자기도 하였다. 아동의 야뇨증은 문제행동이라기보다는 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 같다고 위탁부모는 평가하였다. 영아기 때부터 엄마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대소변 훈련을 누가 관심 있게 해준 사람이 부재하였기에 아동이 그 조절 능력을 습득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위탁모는 새벽 2시쯤에는 꼭 깨워서 아동을 화장실로 데려가서 오줌을 누게 하기를 한 달을 넘게 하였다. 아동은 이제 위탁모가 2시쯤 조그만 목소리로 깨우면 절로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잠을 잔다고 한다. 초기에는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오줌을 이불에다 누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그림 3〉 위탁부모가 평가한 아동의 문제 행동

### (3) 적응과정에서 친가정 복귀 가능성

선행연구에서는 위탁아동의 친 가정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피학대아동을 위탁 배치 전 친 가정 복귀에 대한 계획의 명시, 친부모-아동 만남의 명시, 친가정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친부모- 위탁 모 교류, 친부모-아동 방문과 전화, 편지교류,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아동- 친부모와의 관계 재형성을 위한 개입 등을 보고하였다(Wulczyn, 2004; Maluccio, 1996; Haight, 2004; Fein and Staff, 1993). 이와 같은 요인에 기초하여 3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친가정 복귀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A아동의 경우 전문기관의 개입으로 인한 위탁배치 전 친가정 복귀에 대한 계획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고 친부모- 아동과의 만남에 대한 것도 구두나 문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친부가 알코올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전문적 서비스가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가 병원에서 퇴원 후 아동과의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아동은 거부를 하여서 만나지 못하였고 친부에 대한 관계 재형성을 위한 전문가의 개입은 없었다. 전화나 편지 교류 또한 없었다. 아동은 친가정 복귀에 대해서 지금도 거부하고 있으며 앞서 밝힌 요인들의 평가에 기초해 볼 때 지금 현재 친가정 복귀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B아동의 경우 위탁초기부터 전문적 기관을 통하여 위탁보호를 받게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가정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친부모와 아동의 만남에 대해서는 구두로써 위탁

가정과 친가정이 함께 이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생일, 명절, 학교 행사나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때 서로 자연스럽게 방문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친부와 위탁부모의 자연스러운 교류과정에서 친부가 위탁가정에 전화를 자주 하였으며 간헐적으로 방문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위탁배치 2년 이후 친부의 요청으로 친가정에 복귀하였으나 친부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아동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친가정 복귀 후 전문가의 사후 관리도 없는 상태에서 아동은 혼자서 3시간동안 자전거를 타고 위탁가정으로 재 복귀하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다. 친부와 위탁가정은 지금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친부의 아동의 양육능력 확대를 위한 개입이 된다면 친가정복귀 가능성은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C 가정의 경우 처음부터 친가정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명시되었다.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며 친가정과의 만남도 1달 1회로 명시하였으나 친부가 멀리 장기출타를 하여 친부를 대신하여 친조부가 간헐적으로 아동과 만났다. 아동 또한 친가정에 방문하여 주말을 보내거나 여름방학을 보내기도 하였다. 아동과 친부와의 관계 재형성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은 없었으나 아동이 친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서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볼 때 친가정으로 복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표 4> 적응과정에서 친가정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례 간 분석

과 정 (요 인)		사 례		
		A	B	C
탐색 및 시험 단계	위탁 배치 전 친가정 복귀에 대한 계획 명시	○	○	●
	친부모-아동 만남 명시	○	◐	●
	친가정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	○	◐
신뢰감 형성단계	친부모-위탁부모 교류	○	●	●
	친부모-아동 방문	○	●	●
	아동-친부모 편지·전화교류	○	●	●
학대 후유증 회복단계	전문가-친부모 교류	◐	○	●
	아동-친부모 관계 재형성	○	◐	○
	친가정 복귀 경험 (재 위탁)	○	●	○
	친가정 복귀 가능성	○	◐	●

● = 실행, ◐ = 일부실행, ○ = 미실행

#### 4) 이야기윤곽의 전개

피학대아동들은 신체, 행동상의 학대 후유증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심각한 신체, 행동상의 학대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학대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어른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위탁가정에 오기 때문에 위탁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학대아동들은 불안한 모습과 냉소적인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방안에서 혼자만 있으려고 하거나 말을 거의 하지

않거나 엉뚱한 말을 하는 등 자폐증상을 보이기도 하였고 언어표현능력이 나이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기도 하며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의 모습을 보였다.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정성을 다하여 보호하여 위탁아동이 신체적으로 편안한 상태에 있지만 친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가 자신들을 버린 경험으로 인하여 위탁부모가 친절하게 대하여 주는 것도 얼마 가지 않고 자신들이 다시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위탁아동들은 위탁부모들이 어떤 사람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며 **위탁부모를 시험**하였다. 이때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을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가정위탁지원센터 사회복지사들의 상담과 도움으로 위탁아동들에 대하여 이해를 하게 되었다. 한편, 위탁아동들의 **학교에서의 부적응**은 자신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게 하였고, 담임교사의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 아동은 학교에 더 적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서적 불안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내하면서 **적극적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으로 인하여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간에 원만한 대화가 가능하였으며, 위탁아동들은 습관이 변화되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식탐과 야뇨증 등의 증상도 감소하였다.

위탁모가 위탁아동을 친자녀보다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을 때 **친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탁부모가 친자녀에게 관심과 배려를 해주는 시간을 따로 가짐으로써 이러한 어려운 고비를 지혜롭게 극복하였으며, 친자녀는 부모의 위탁부모로서 역할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어 위탁아동과 더 친밀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위탁아동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대해주는 위탁부모로 인하여 **위탁가정의 구성원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하게 되었고, 위탁아동의 **학대후유증은 회복**되어 갔다. 이러한 회복과정을 통하여 위탁아동은 미래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또 다른 위탁아동을 돕겠다는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다.

## 5.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에서 고찰한 피학대아동의 위탁가정에서의 적응 과정은 위탁아동이 위탁가정 구성원 및 친가정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서적 불안정과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행동들과 학대후유증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위탁가정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친가정과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위탁보호에 대한 안정적 적응, 학대후유증 회복, 친가정 복귀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학대아동의 위탁가정에서의 적응과정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과 문제행동이 감소되어 가는 회복의 과정으로 그것은 아동과 위탁부모, 위탁가정구성원, 친가정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적응과정은 학대후유증을 회복해나가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위탁가정 배치 후 피학대아동의 위탁가정 내에서의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위탁부모의 적극적인 부모역할'이었으며 '친자녀와의 관계', '친가정과의 관계' 등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위탁가정에 배치 된 피학대아동이 위탁가정에 적응하는 과정은 탐색 및 시험, 상호작용, 학대 후유증 회복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넷째, 피학대아동들의 학대후유증은 회복되어가지만 피학대아동들의 '친가정 복귀'와 함께 병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위탁 과정 중에 친가정(친부모)과의 접촉이나 관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친부모와 피학대아동의 만남 및 접촉, 친가정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아동과 친부모와의 관계 재형성 등이 발견되었다.

##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피학대아동에 대한 후유증을 잘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준비된 위탁가정을 발굴해야 한다. 한국의 위탁보호사업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예비위탁부모를 발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나 피학대아동의 특성과 학대후유증을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위탁가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학대아동의 경우 위탁가정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단계를 통해 적응이 되어 가고 있고 안정적인 적응을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위탁부모의 적극적인 부모역할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지원이 월 7만원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위탁부모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어려운 과정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피학대아동에 대한 애정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준비된 위탁가정을 교육하고 준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배치 초기에 피학대아동의 위탁부모 탐색과 시험 단계에서 위탁부모가 소진되지 않도록 전문가나 자조모임의 개입이 필요하며 소진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피학대아동의 경우 한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형제자매가 함께 위탁가정에 가게 된다. 위탁 모 혼자서 그 아동들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위탁부모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위탁부모의 소진을 막을 수 있고 이러한 위탁부모의 소진예방이 피학대아동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피학대아동을 양육해본 선 경험자의 조언이나 자조모임을 통한 격려,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역할이 위탁부모의 소진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정된 적응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피학대아동의 위탁보호 전 과정에서 피학대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위한 계획이 요구된다. 피학대아동의 친가정으로의 복귀에 있어서 전면적인 복귀가 어려운 경우 선택적인 단계를 유지하고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피학대아동과 친부모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계획된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은 친가정 밖의 아동과 그들의 친가정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피학대아동과 친부모가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혈연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 피학대아동의 분리가 불가피할 경우 친부모와의 재결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위탁보호 배치 전과 초기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에 참여한 피학대아동들 중에는 위탁보호를 결정하기 전에 인근 지역사회 내에서 친가정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역할 기술을 확대하고 친가정에서의 부족한 양육 부분을 보완해 준다면 가정위탁보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아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셋째, 피학대아동을 위한 가정위탁보호는 반드시 포괄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네트워크의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위탁가정에서의 적응을 위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친가정에 대한 집중적인 가족지지 서비스, 특히 주택, 고용, 기회, 건강, 교육, 소득 보존, 물질남용 상담, 정신건강 서비스, 부모역할 교육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서비스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순이. 2004. “위탁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사업의 서비스 접근 방안 - 행정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29-54.
- 권은정. 200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 및 지속성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노혜련. 1999. “요보호 아동 그룹 홈의 이론과 과제” 『현실과 대안』 2: 78-110.
- 양심영. 2003. “가정위탁서비스의 보호형태별 특성과 위탁아동의 적응에 관한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5): 131-148.
- 양심영. 2004. “가정위탁지원사업 평가에 따른 서비스 발전방안 모색”.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57-77.
- 이기정. 1999.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와 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이송이. 1999. “가정위탁보호 양육 환경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유태균 역. 199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Padgett, D.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서울: 나남 출판사.
- 전재일·박영준. 2002. “가정위탁보호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8: 81-103.
- 정선옥.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정영순. 2000. “부모있는 시설보호아동의 가족복귀 방안”. 『한국아동복지학회지』 9: 29-47.
- 허남순. 2000.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지』 9: 59-77.
- 허남순. 2004.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3-25.
- 보건복지부. 1997. 통계자료.
- 보건복지부. 1998. 통계자료.
- 보건복지부. 1999. 통계자료.
- 보건복지부. 2000. 통계자료.
- 보건복지부. 2001. 통계자료.
- 보건복지부. 2002. 통계자료.

- 보건복지부. 2003. 통계자료.
- 보건복지부. 2004. 통계자료.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2. 통계자료.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 통계자료.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통계자료.
- Ainsworth, F. 1998. "The Policy Practice of Family Reunification." *Journal of Australian Social Work* 51: 3-7.
- Berrick, J. D., R. P. Barth, and B. Needell. 1994. "A Comparison of Kinship Foster Home and Foster Family Homes: Implications for Kinship Foster Care as Family Preserv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 33-63.
- Blome, W. W. 1997. "What Happens to Foster Kids: Educational Experiences of a Random Sample of Foster Care Youth and a Matched Group Home - Foster Care Youth."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4: 41-53.
- Borgman, R. 1982. "The Consequences of Open and Closed Adoption for Older Children." *Child Welfare* 61: 217-226.
- Cynthia, C. 2004 *Exploring Child Welfare: A Practice Perspective* (3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Downs, S., L. Costin, and E. McFadden. 1996.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Policies and Practice* (5th Eds.). New York: Longman.
- Fahlberg, V. 1978. *Attachment and Separation*. MI: Michigan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Fanshel, D., and E. Shinn. 1978. *Children in Foster Care: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anshel, D. 1982. *On the Road to Permanency: An Expanded Data Base for Service to Children in Foster Care*. New York: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Fanshel, D., S. J. Finch, and J. F. Grundy. 1990. *Foster Children in a Life Course Perspectiv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ein, E., A. N. Maluccio, V. J. Hamilton, and D. Ward. 1983. "After foster care: Outcomes of permanency planning for children." *Child Welfare* 72: 485-558.
- Fein, E., A. N. Maluccio, and M. P. Kluger. 1990. *No More Partings: An Examination of Long-Term Foster Family Care*.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Fein, E., and A. N. Maluccio. 1992. "Permanency Planning : Another Remedy in Jeopardy." *Social Service Review* 66: 335-348.
- Fein, E., and I. Staff. 1993. "The Interaction of Research and Practice in Family Reunification." pp. 199-212. in *Family Reunification in Foster Care*, edited by B. A. Pine, R. Warsh, and A. N. Maluccio.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Festinger, T. 1994. *Returning to Care: Discharge and Reentry into Foster Care*.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Haight, W. L., J. D. Kagle, and J. E. Black. 2004.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 Parent-Child Relationships during Foster Care Visits: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Social Work* 48: 195-204.
- Kadushin, A., and J. Martine. 1988. *Child Welfare Services* (4th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vy, T., and M. Orlans. 1998 *Attachment, Trauma and Healing*.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Maluccio, A. N. 1996. "Family Reunification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Research Perspectives." *Journal of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8(4/5): 287-305.
- Maluccio, A. N., E. Fein, and I. Davis. 1994. "Family Reunification; Research Findings, Issues, and Directions." *Child Welfare* 73(5): 489.
- Maluccio, A. N., R. Warsh, and B. A. Pine. 1993. "Family Reunification: An Overview." pp. 3-19. in *Family Reunification in Foster Care*, edited by B. A. Pine, R. Warsh, and A. N. Maluccio.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McAuley, C. 1996. *Children in Long-Term Foster Care: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Aldershot: Avebury.
- Miles, M. B., and A. M. Huberman. 1994. *The Qualitative Data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 Minty, B. 1999. "Annotation : Outcomes in Long-Term Foster Family 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 991-999.
- Patton, M.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Pecora, P. J., J. K. Whittaker, and A. N. Maluccio. 1992. *The Child Welfare Challenge -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ew York: Adline de Gruyter.
- Rowe, J., H. Cain, M. Hundleby, and A. Keane. 1984. *Long Term Foster Care*. London: Batsford.
- Stahl, P. M. 1990 *Children On Consignment*.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Strauss, A. L., and J. Corbin.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 Wedeven, T., P. J. Pecora, M. Hurwitz, R. Howell, and D. Newell. 1997. "Examining the Perceptions of Alumni of Long-Term Family Foster Care - A Follow-up Study." *Community alterna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Family Care* 9: 88-106.
- Werner, O. 1992. "How to Record Activities." *Cultural Anthropology Methods Newsletter* 4(2): 1-3.
- Werner, O., and G. M. Schoepfle. 1987. *Systematic Fieldwork: Ethnographic Analysis and Data Management*. Newbury Park. CA: Sage.
- Wulczyn, F. 1991. "Caseload Dynamics and Foster Care Reentry." *Social Service Review* 65: 133-156.
- Wulczyn, F. 2004. "Family Reunification." *The Future Of Children* 14(1): 95-113.

## A Study of Adaptation Process relating to Abused Children in Long-term Foster Care

Chang, Yoon-Young

(Soongsil University)

Park, Tai-Young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daptation process of abused children in long-term foster care and the stages of adaptation process. Also,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of abused children in long-term foster care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daptation process in long-term foster care and the recovery of aftereffect of the abused children. The researchers tried to fi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ossibilities about the return of their biological parents' home.

The researchers used a purposeful sampling and interviewed three abused children and three parents in long-term foster care and two social workers. This study utilized grounded theory approach of Strauss and Corbin(1990) to analyze the interviewed data. Specifically, the researchers applied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from grounded theory approach to analyze the data. On the other hand, the researchers used Miles and Huberman(1994)'s time-ordered matrix and time-ordered network to investigate the categories influencing the adaptation process of abused children in long-term foster care.

This study used interviewees, literatures, newspapers, and internet resources relating to abused children for triangulation of data. The researcher interviewed from October 15, 2004 to January 31, 2005. The total sessions of each person were consisted of two sessions for each person and the interview time of each session was one or two hours.

Key words: abused children, long-term foster care, adaptation process, adaptation stages, aftereffect of abused children, the possibilities of return to his/her own parents' home.

[논문접수일 2005. 10. 15. 게재확정일 2006. 1. 26.]